

익산 도심에서 자연을 느끼다

익산시,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왕궁면 푸르지오 단지 내... 공보육기반 시설 확충 박차

국립 치유의 숲 내년 상반기 준공 · 남부권 순환형 힐링 보행로 조성 착수

익산시가 대규모 도시 숲과 공원 치유의 숲 숲세권 주거단지 조성으로 녹색정원도시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특히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시설이 집중적으로 구축되면서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하는 등 시민이 피부로 공감하는 푸른 익산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유천생태습지.

(사진=익산시청 제공)

우선 도내 유일의 '국립 치유의 숲'이 내년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다. 치유의 숲이 개장하면 방문객들은 금강의 절경이 내려다보이는 합다산 자락을 편하게 누빌 수 있게 된다. 원광대 한방병원 등 지역 인프라를 연계한 웰니스(숲치유·한방) 관광지까지 여행객을 맞이한다.

최북단 차나무 군락지까지 연결된 산책 코스로 조성된다. 태봉골에서 출발해 치유의 숲까지 2km 구간, 아생차 군락지를 거쳐 입점마을까지 연결되는 9.18km 구간이다. 해당 구간에 꽃과 수목 10만 그루까지 식재가 완료되면 계절별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명소가 될 예정이다.

전북 제4호 민간정원 '아카페 정원'은 방문자에게 힘을 주는 공간으로 각광 받고 있다. 이곳은 1970년 고 사정수 신부카 노인복지시설을 설립하며 시설 이용자를 위해 조성한 사유 정원이다. 50년 만에 신비의 베일을 벗고 감춰져 있던 아름다운 정원을 외부인에게 공개해 비밀의 정원으로도 불린다.

면적 11만 5,700㎡(3만 5,000평) 규모를 자랑하는 아카페정원은 상사화 꽃길과 단풍나무길, 밤나무, 유럽식 정원, 은행나무 산책길 등 울창하면서도 다채로운 식생으로 꾸며졌다. 그중 메

타세쿼이아 500여 그루가 죽 뻗어있는 구역은 방문객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사진 명소다.

탁 트인 경관이 매력인 '유천생태습지'도 빼놓을 수 없는 익산의 대표 녹색 공간이다. 이곳의 랜드마크는 빙글 빙글 돌레길을 걸어 오르는 '하늘인덕'이다. 만경강과 이어지는 유천에 조성된 생태습지는 하천 수질을 정화하고 주민에게는 싱그러운 생활 공간을 제공한다.

익산시는 여기에 더해 이달부터 유천생태습지와 기존에 있는 동산지구 산책길을 잇는 남부권 순환형 힐링 보행로 조성공사에 착수했다. 내년 3월께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걷기는 곳 없이 한 바퀴에 4km가량 되는 대규모 순환형 보행로가 탄생한다.

바람개비 길이 아름다운 '용안생태습지'는 다양한 테마가 접목된 지방정원으로 재탄생될 전망이다. 시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정원과 체험, 편의시설을 조성해 지방 정원을 운영하고 최종 목표인 국가 정원 지정에

도전하겠다는 복안이다.

전북 1시군 1생태공원 사업의 일환인 '금마 서동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생태학습원과 놀이터 등 생태관광 기반시설에 방문자 안내와 교육을 위한 공간을 조성해 어린이 등에 환경 체험학습 기회와 오감 만족 체험공간을 제공한다. 도심 어디서든 녹색공간을 만끽할 수 있도록 숲세권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2025년까지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으로 도심 속 공원 5곳을 조성한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익산 지역 공원 조성 면적은 기존 190만 2,000여㎡에서 313만 7,000여㎡로 1.7배 가량 확대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까지 도시 숲 면적도 대폭 늘린다. 장항선 폐철도 유휴부지인 송학동~오산면 3.5km 구간과 전라선 폐철도 유휴부지인 화동 1km에 110억 원을 투입해 11ha의 기후 대응 도시 숲을 조성한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가 지난 1일 왕궁면 푸르지오 더퍼스트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인 푸르지오 사랑가득한 어린이집을 개원하며 공보육기반 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원식에는 정현을 시장을 비롯해 푸르지오더퍼스트 시행사 관계자, 보육관계자, 학부모,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푸르지오 사랑가득한 어린이집의 개원을 축하했다.

시는 지난 4월 시행사 대한토지신탁(주) 및 (주)사성도시개발과 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 리모델링과 교재교구비 등으로 1억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지상 1층 어린이집 용 건물 전체를 사용하며 시설 면적 322㎡ 규모로 보육실 4개, 유희실 1개, 외부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갖췄고 정원 49명으로 운영된다.

시는 영유아 부모가 아이를 안심하



고 말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매진하고 있다.

이번 개원으로 익산시 내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18개소로 늘어났으며, 2026년까지 총 1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로 설치해 폭넓은 공보육 기반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현을 시장은 "영유아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아동 권리 향상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익산시가 아동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아동 권리 증진에 앞장선 노력을 인정받았다.

시는 지난 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제20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개인 12명, 단체 8개가 수상 명단에 올랐으며 익산시의 수상은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다.

이번 평가에서 익산시는 아동총회 발전과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엔아동권리협약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한 아동 친화적

환경을 구축한 데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아동친화도와 아동권 영역을 중심으로 시정을 연계한 아동 친화 예산을 대거 투입해 아이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이 높게 평가됐다.

시는 △아동참여위원회 구성·운영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강화 △아동친화적 문화·체육·여가 시설 확충 △아동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38개 부서에서 총 308개 사업을 진행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영유아 상해·질병보험 지원사업 종료

군산시가 관내 만 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해온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사업을 오는 12월 31일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시는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0세~만6세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선천이상 수술비, 상해입원 일당 등 9개 항목의 보장항목을 가입해 지원해 왔다.

하지만 시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민간보험 가입지원 사업은 과잉의료 유발 등 국가의료체계(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업을 재검토(폐지)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시가 해당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최대 20여억원 가량(매년 6억원 정도 가산)의 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중앙부처 공모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만 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해온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첫 독립생활 시작

일상생활 · 사회참여활동 · 보건의료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군산시는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1일 장애인거주시설을 떠나 네명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의 첫 독립생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시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시설장애인의 자립지원을 함께하기 위한 수행기관(군산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센터)을 7월에 선정했으며, 시설거주장애인 및 시설입소 희망장애인 44명을 대상으로 자립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자립에 대한 의지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 25명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완료했으며, 최종 4명이 자립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립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그동안 시설에서 다른 장애인들과 함께 정해진 시간에 집을 자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여가생활을 했다던 이제는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

/군산=김판곤 기자

또한,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아직은 독립생활이 서툰 장애인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조성하고 대상자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일자리, 일상생활지원, 건강관리, 야간 및 긴급 대응, 식사지원 등)를 지원한다.

배숙진 경로장애인과장은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떠나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주택 확보, 복지서비스 제공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